바른미래-대안신당-민주평화, '민생당'으로 새출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유성엽 · 박주현 · 김정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군소 3당이 24일 합당을 선언하고, 통합 신당 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 당 대표와 통합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는 합당선언문에서 "중도통합 정당이 국민 성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와 중도 개혁 정치의 한길을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박주현,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 대안신당 · 민주평화당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안신당의 최경환 대표는 합당선언문에서 "국론을 통합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정치가 낡은 구조에 얽매여 극한의 이념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며 "거대양당은 권력 다툼에 눈이 어두워 생존의 기로에 선 우리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정치의 '고인 물'은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는 "정치구조 개혁은 중도통합 정당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투쟁의 거대양당제를 타파하고,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3당은 합당 선언과 통합선언문 낭독 후 곧바로 합동회의를 개의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대통합추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대한민국의 희망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부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해결하고 챙기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대안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대안 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3당 합당을 결정한 것"이라며 "3당 통합에 이어 새로운 외부 세력과 부단히 결합해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고 국민들의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통합추진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3당이) 그동안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통합했듯이 민생을 앞세우는 세력과 더 넓게 통합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 개혁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당명은 민생당으로 확정됐다. 회의에서 당명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민생당', '민주연합', '3지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민생당이 12표를 얻었다. 민주연합 10표, 3지대 8표였다.

호남 3당이 민생당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기존 3당 대표는 이날 사퇴하고,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해 3인 공동대표 체제를 구성했다. 김정화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전 대안신당 대표, 박주현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김정화 전 대변인이 민생당 대표로 등록한다. 이는 지난 20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최고위원에는 바른미래당 출신의 이인희 비서실장, 대안신당 출신의 황인철 부총장, 민주평화당 출신의 이관승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경선 컷오프' 최형재, 무소속 출마 선언

"전주소속 시민 후보로 나설 것"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경선에 나섰던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을)가 컷오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민주당 탈당과 함께 전주소속 시민 후보로 나서겠다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당내 경선 컷오프 결과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석패이후 4년 간 죽을힘을 다해 준비하고 그 결과 최근 예비후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로 증명됐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는 21일 컷오프 결정을 내리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줄곧 1위를 달려온 후보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배제할 수 있단 말인가,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최형재 예비후보는 "지난 20여년간 당을 위해 헌신한 저를 당은 짓밟고 일회용품으로 버렸다"며 "시민후보로서 공정과 개혁의 길을 따라 정정당당한 삶의 태도로 정면돌파 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4 · 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이춘석,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5대 핵심공약 발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24일 '익산의 꿈, 시민과 함께 이뤄 나 가 겠 습 니 다!'라는 비전과 함께 익산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농생명산업 수도를 위한 농산업 벤처창업 허브 구축, ▲교통중심도시 익산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 및 KTX익산역 역세권 활성화, ▲고대유적과 근대유산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지정, ▲농가소득확대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북부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의 미래를 바꿀 5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익산발전 미래구상 마무리 짓고파" 총선 출마 공식화

조배숙 국회의원이 24일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조 의원은 "오직 익산만을 생각하며 일편단심 익산발전의 한길을 달려왔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제 손으로 시작했던 익산발전의 미래구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국내 굴지 식품기업인 본죽, 풀무원 등이 둥지를 틀었고 하림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 또 익산국가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청년친화형 산단 지정으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도심 속 낙후지역이던 약촌오거리의 새로운 변화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청년벤처 실리콘밸리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역사문화도시, 식품도시, 보석도시, 식품도시로서 익산융성의 미래청사진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제시하며 1,000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별취재반

대안신당 전북도당위원장에 고상진 예비후보

대안신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0여 명의 당원이 모인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2시경 익산 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6번째로 개최했고, 초대 도당위원장에 고상진 익산 갑 예비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창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초대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고상진 예비후보는 "지난 수요일 원내교섭단체연설에서 20대 국회 최고의 연설을 해주신 유성엽 대표께서는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호남에서 가짜 민주당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강조했다.

한편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4일 통합정당을 구성하고 3월 중 2차, 3차 단계적 통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특별취재반

"선거운동보다 시민 건강 시급"

민주 김윤덕 예비후보 코로나19 방역 활동 벌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근 전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4일 전주시 노송동 일원을 찾아 전주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펼쳤다.

김윤덕 예비후보는 이날 방역 활동에 앞서 "경선을 앞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이 급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서민경제의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방역활동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조금이나마 저지되어 어서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다"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운동을 자제할 것을 다짐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4일 전주시 노송동 일원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주갑 지역은 김윤덕 예비후보와 김금옥 예비후보가 2인이 경선을 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김윤덕 예비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지난 4년간 힘든 시간이었지만 절치부심하여 민주당과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지역으로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렵기만 했다"면서 "시민들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경선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경선의 기회를 김윤덕의 성실함, 김윤덕의 절실함, 김윤덕의 정직함으로 돌파하여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덕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대면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전화홍보와 SNS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선거운동에 임해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취재반

"선거정보 확인은 온라인으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도선관위 청사 앞에서 국회의원선거 D-50일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한국선거방송으로 선거정보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알아보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윤준병 "부창대교 등 10년 묵은 지역현안과제 해결"

묵묵히 정책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읍 · 고창의 해결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가 네 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의 ▲돈이 되는 농어축산업의 육성 ▲일자리를 늘리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관광시스템 구축 ▲10년 묵은 지역 현안과제 해결 ▲노인, 여성, 청년, 다문화, 장애인 복지시스템 강화 ▲예향 · 의향으로서 자긍심이 구현되는 문화 · 예술의 진작 등의 6대 정책 중 네 번째인 '지역현안 해결'은 '그간 10년 넘게 정체되어 실현이 어려웠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지난 10년의 현안과제로 윤 예비후보는 ▲부창대교 건설 ▲영광원전의 안전성 강화방안 ▲내장호의 국립공원 제척 ▲동학농민혁명 계승의 내실화가 있으며 정읍시와 고창군의 읍 · 면 · 동별 현안의 해결을 꼽았다. /특별취재반

박희승 "주민 건강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운동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 · 임실 · 순창)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이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다행히 남원 · 임실 · 순창 지역의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장서서 주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박 예비후보는 행사장 방문과 집회 참석 등의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대신, 후보를 알리는 비접촉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악수 대신 목례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역 주민을 최대한 배려하는 선거운동을 할 방침이다.

이어 박 예비후보는 이강래, 이용호, 정상모, 방경채 등 상대 후보 진영에도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 밀착형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비접촉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선관위, 27일부터 입후보안내 설명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 ·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진안군수재선거, 전주시의원보궐선거(전주시마선거구), 군산시의원재?보궐선거(군산시바선거구)의 입후보안내 설명회도 같이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 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각종 신고?신청 방법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개최일정은 27일 익산시 · 김제시선관위를 시작으로 28일 전주시덕진구 · 군산시 · 정읍시 · 진안군선관위, 3월 3일 남원시?완주군선관위, 3월 6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후보자 등록신청은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고,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다. /김진성 기자

임정엽 "로컬에너지 자립으로 근본 방향 전환해야"

임정엽 완주 · 무주 · 진안 · 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로컬에너지'로 지역에너지 자립화를 강화키로 했다.

로컬푸드 성공에 이은 제2의 지역화 전략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임 예비후보는 진안 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집중식 발전방식과 초고압 송전선 건설, 비민주적사업추진 등으로 특징되는 현재 전력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로컬에너지 자립으로의 근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담과 사회갈등, 높은 송전비용으로 중앙집중형보다는 소비지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분산형 체계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 예비후보는 "지역에너지의 전환이 현실화된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마을단위 열 병합이나 산림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자원화 시설지원, 농가형 개별주택 단열 개선과 보급시설 확충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